# 농가 농업소득 감소…청년농 육성·귀농정책 강화해야

## 농경연 조사, 지난해 농업소득 평균 949만원…5년 전보다 27% 감소
## 지난해 '고령 소농' 63.5% 달해…청장년 소농·중대농 비율 크게 줄어

농가에서 연간 벌어들이는 소득 중 농업활동이 차지하는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간 농업소득은 매년 7% 이상 감소한 반면, 농외소득은 2% 이상 증가했다. 우리 농촌은 적은 규모의 고령농가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청장년 농가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5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2018~2022년 농가경제 변화실태와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들의 평균 농업소득은 949만원이었다. 이는 2018년(1292만원)보다 27% 감소한 것으로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7.4%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지난해 농외소득은 1920만원으로 1695만원이었던 2018년보다 13.3% 늘었다.

특히 농외소득은 2020년 이후 줄곧 증가하며, 2021년 1788만원, 2022년 1920만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놓고 보면 41.6%로 최근 10년 내 최고였다.

농가소득은 2018년 4207만원→2019년 4118만원→2020년 4503만원→2021년 4776만원→2022년 4615만원으로 증가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농가 고령화에 따른 공적 연금소득 증가와 공익직불제 실시 등으로 이전소득이 매년 증가한 게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봤다.

연구원은 "공적 보조금은 연평균 11.7%씩 증가했는데 2020년 공익직불제 도입 효과가 나타난 영향이 크며 기초연금과 국민(노령)연금을 수급받는 농가 고령인구의 증가도 주요인 중 하나"라며 "공적 보조금의 가파른 증가세에 힘입어 이전소득은 2019년부터 농업소득을 제치고 원천소득 중 농외소득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전소득은 2018년 989만원에서 2022년 1481만원으로 54.1% 증가했다.

지난해 국내 농가를 연령·규모별로 구분해보면 '고령 소농'이 63.5%로 가장 많았다.

고령과 청장년은 65세를 기준으로, 소농과 중대농은 표준영농규모 2ha를 기준으로 했다.

고령 소농 비율은 2014년을 기점으로 50%대를 유지하다 2022년 60%를 넘어섰다. 고령 소농 비율은 2013년 47.3%에서 2022년 63.5%로 16.2%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청장년 소농과 중대농 수는 모두 감소하는 추세다. 청장년 소농은 고령 소농 다음으로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 비율이 2013년 30.6%에서 2022년 18.0%로 12.6%포인트 감소했다.

2013~2022년 동안 연평균 농가 수 감소율이 가장 큰 유형은 청장년 중대농이고, 증가율이 가장 큰 유형은 고령 중대농이었다. 같은 기간 청장년 소농 및 중대농 비율은 각각 연평균 7.6%, 10% 감소한 반면, 고령 소농 및 중대농 비율은 각각 1.3%, 1.7% 증가했다.

청장년 소농은 농외소득 비율이 높고, 청장년 중대농은 농업소득 의존도가 높았다. 청장년 소농 소득은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소득 중 농외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65.5~70.5%로 가장 높았다.

연구원은 청장년 소농 집단의 대부분이 2종 겸업농가로서 영농 활동보다는 농외 활동을 통해 소득을 얻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고령 소농은 소득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증가 폭에서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업소득은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여주는 근원 지표이기 때문에 농업소득 증진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며 "또 농가 고령화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베이비붐 세대 농업인과 청년농, 귀농 간의 영농승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년농 육성 및 귀농 정책에 지금보다 더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플라워페스티벌 '지구, 꽃으로 피어나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서울 aT센터 제2전시장에서 국내외 내빈과 함께 '제5회 양재플라워페스타'를 진행했다. '지구, 꽃으로 피어나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전 세계 나라꽃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aT 제공〉

# 11월에도 金사과…"사과, 지난해보다 2배 비싸"

## 최대 배 81%·단감 57.5%↑

주요 농산물 가격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이달 사과를 비롯한 일부 과일 가격이 작년보다 최대 두 배 뛸 것으로 보인다.

5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관측 11월호 과일'과 '농업관측 11월호 과채' 보고서에 따르면 이달 사과(후지·상품) 도매가격은 10㎏에 5만~5만4000원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보다 79.9~94.2% 오른 것으로, 올해 사과값이 작년의 두 배 수준에 달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또 사과 가격은 평년 도매가격과 비교해도 87.2~102.2% 비싼 수준이다.

평년 가격은 2018년부터 작년의 최대·최소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치다.

이밖에 배(신고·상품)는 15㎏에 5만3000~5만7000원으로 1년 전보다 68.3~81.0%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평년 가격과 비교해서도 40.4~51.0% 높은 수준이다.

단감(상품)은 10㎏에 3만6000~4만원으로 1년 전보다 41.7~57.5% 비싸고, 평년보다도 35.0~50.0% 높을 것으로 농경연은 내다봤다.

겨울철 대표 과일인 감귤(상품)은 5㎏에 9000~1만1000원으로 작년(9600원)과 비슷하거나, 최대 14.6% 높은 수준에 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됐다. 평년 가격과 비교하면 최대 23.0% 비싸다.

이처럼 과일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생육 부진으로 공급이 감소한 게 영향으로 지목된다.

연구원은 올해 사과와 배는 생산량이 작년보다 각각 24%, 19% 감소하고, 단감은 병해로 생산량이 30%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귤 생산량은 작년과 유사한 수준이지만, 다른 과일값이 오르면서 대체재로 수요가 증가해 가격이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수산물 최대 60% 할인 '대한민국 수산대전-코리아수산페스타'

## 25일까지 온·오프라인 행사

해양수산부는 10월에 이어 11월에도 수산물 할인행사를 진행, '대한민국 수산대전-코리아수산페스타'을 오는 25일까지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2020년 시작된 대한민국 수산대전은 마트와 온라인몰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살 때 30%에서 최대 60%까지 할인(정부지원 할인율 30%)받을 수 있는 행사다.

이번 행사에서는 김장재료인 천일염, 새우젓, 멸치액젓을 비롯해 대중성 어종인 명태, 고등어, 오징어, 참조기와 양식 수산물 등 모든 국내산 수산물이 할인 판매된다.

전국 14개 마트(1766개 점포)와 24개 온라인 쇼핑몰이 이번 행사에 참여한다.

해수부는 전국 30개 수산(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 금액의 최대 40%를 1인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도 8월 31일부터 상시 진행 중이다.

또한 비플제로페이 앱 등에서 20% 선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되는 수산물 전용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도 매주 목요일에 발행한다.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은 지난달 16일부터 사용처가 전통시장 밖에 있는 수산물 도·소매점까지 확대됐다.

해수부는 김장 주재료 중 하나인 천일염 가격을 작년 수준 이하로 낮추기 위해 정부비축 천일염 최대 1만t을 시장에 공급한다. 이 같은 규모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해수부는 다음 달 15일까지 전통시장과 마트 등에 국산 정부비축 천일염 최대 5000t을 우선 공급해 현재 시중가격(10㎏ 기준 약 3만원)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할인 판매한다. 해수부는 국산 비축물량 외에도 수입산 천일염을 5000t 확보해 공급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또 6일부터 대표적인 대중성 어종인 고등어 1만t에 대해 할당관세(관세 10→0%)를 시행한다. 이번 무관세 조치를 통해 소비자 선호가 높은 중·대형어(300~600g) 공급 부족이 해소될 것으로 해수부는 보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세계 식량가격 설탕·곡물 내리고 유제품 올랐다

## 3개월째 하락세

세계 식량 가격이 3개월째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한 지난달 세계식량가격지수는 120.6으로 전월(121.3)보다 0.5% 내렸다.

지난해 3월 159.7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올해 7월 124.1까지 떨어졌고 8월부터 석 달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FAO는 24개 품목에 대한 국제 가격 동향을 조사해 5개 품목군별로 식량가격지수를 매월 집계해 발표한다.

지수는 2014~2016년 평균 가격을 100으로 두고 비교해 나타낸 수치다.

품목군별로 보면 곡물, 유지류, 육류, 설탕 가격은 모두 내렸고 유제품 가격만 상승했다.

지난달 유제품 가격지수는 111.3으로 전월 대비 2.2% 상승했다.

동북아시아에서 분유 수요가 증가했고 서유럽의 우유 생산량 부족, 오세아니아 지역의 우유 생산 감소 우려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국제 분유 가격이 상승했다.

버터는 서유럽에서 겨울 휴가철을 앞두고 소매판매가 증가했고, 동북아시아에서도 수입 수요가 늘며 국제 가격이 상승했다.

지난달 설탕 가격지수는 159.2로 2.2% 하락했다.

/연합뉴스